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6. 15 | 통권 제22호(2012-10) |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요약]

- 대부분의 복지국가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 가족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지출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구구성의 변화(changes in family formation)가 가져오는 빈곤과 불평등의 재생산구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3.9%(4,142천 가구)로 2005년 20.0%에서 3.9%p 증가해 최근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함.
- 이에 본고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단독가구¹⁾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단독가구는 다인가구와는 달리 여성, 청년층 및 노년층, 저학력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독가구 내 장년층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임.
- 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단독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로 분석되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가구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44%(2010년 기준)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빈곤 계층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1) 분석자료의 조사단위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정의됨. 본고에서 단독가구는 가구구성원이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하며, 이때 배우자나 자녀(기타가구원 포함)가 취업이나 학업, 기타의 사유로 비동거 상태인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가구원 수별 가구규모 추이

-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3.9%(4,142천 가구)로 2005년 20.0%에서 3.9%p 증가한 것이며, 1980년 4.8%에 비해 무려 19.1%p 증가한 수치임.
-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했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원 수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1인 가구 비중은 16.0%, 2인 가구 22.6%, 3인 이상 가구 61.4%로 분석되었으나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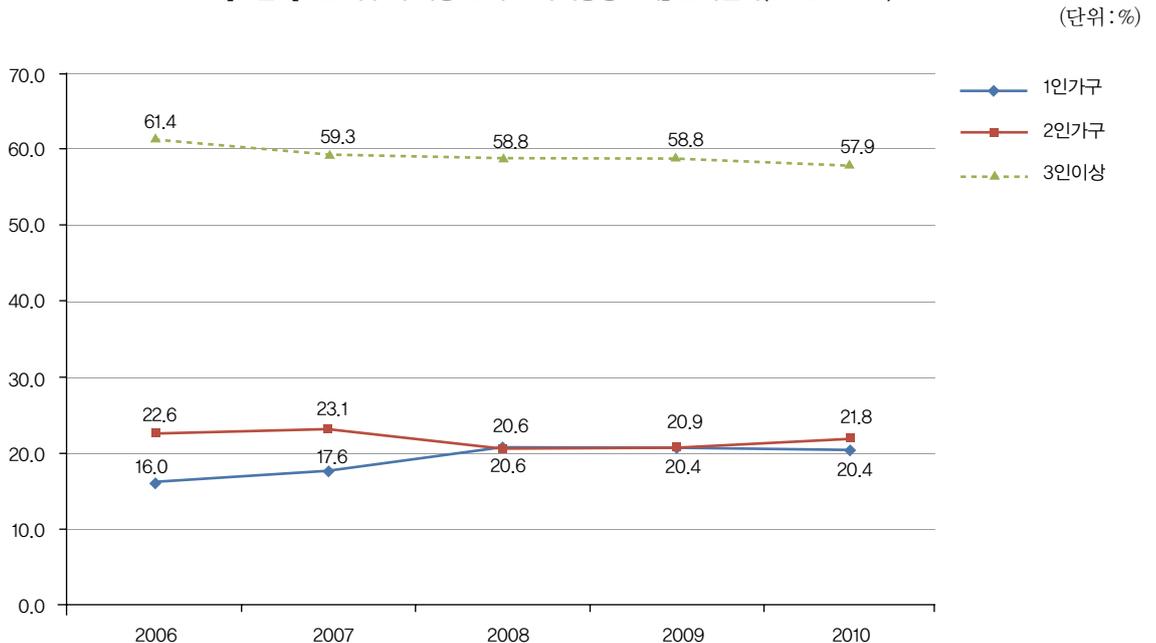
로 2006년에 비해 4.4%p 증가한 반면, 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는 각각 0.8%p,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참조)

단독가구와 다인가구의 특성 비교

■ 인구사회학적 특성

- 단독가구(1인 가구)의 가구주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남성의 비중은 33.2%, 여성은 66.8%로 여성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다인가구는 남성과 여성 가구주 비중이 각각 82.0%, 18.0%로 단독가구와 대조를 이룸.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가구는 11.1%, 장년(31~64세)과 노인(65세 이상)은 각각 53.5%, 35.4%로 나타남.

[그림 1] 1인 가구의 비중 변화 :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2006~20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인가구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2.8%, 장년층이 85.1%, 노년층 비중이 12.2%로 분석되어 다인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의 청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높음.

- 학력별로는 단독가구의 저학력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독가구의 중졸 이하 비중이 2010년 기준 55.9%로 다인가구 중졸 이하 비중인 21.1%와 대조를 보인 반면, 단독가구의 대학 이상 고학력층 비중은 11.6%로 역시 다인가구(27.3%)와 비교해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남.

※ 연령대별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청년층의 절반 이상(54.9%)은 전문대학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6.7%, 1.7%에 불과하여 최근 결혼관의 변화 등에 따

른 만혼화 현상과 고학력 청년층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가구경제적 특성

- 단독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63.2%, 아파트 거주 비중이 24.7%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54.9%로 8.3%p 감소했음. 다인가구는 2010년 기준 아파트 거주 비중이 50.1%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순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는 2010년 기준 단독가구의 자가비율은 39.9%로 다인가구의 자가비율 65.3%와 대조를 이룸. 단독가구의 월세비율은 26.7%로 다인가구

〈표 1〉 단독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

		2006		2008		2010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성	남성	31.4	81.0	32.5	81.0	33.2	82.0
	여성	68.6	19.1	67.5	19.0	66.8	18.0
연령	청년	14.2	3.7	13.4	3.6	11.1	2.8
	장년	47.9	86.0	46.9	84.2	53.5	85.1
	노년	37.9	10.3	39.8	12.2	35.4	12.2
학력	중졸 이하	58.7	25.6	56.8	22.9	55.9	21.1
	고졸 이하	25.9	43.2	25.3	42.2	28.5	41.9
	전문대졸	5.2	7.7	4.0	9.3	4.0	9.7
	대학 이상	10.2	23.5	13.9	25.6	11.6	27.3

주: 다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6년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단독가구의 주거사정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독가구의 가구소득(경상소득 기준)은 약 58%의 근로소득과 18%의 사업소득, 22%의 이전소득(공·사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인가구와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약 20%p 이상 근로소득이 낮고 6%p 이상 사적 이전소득이 높은 특징을 보임. 즉 노동소득 확보를 위한 부족한 가족자원은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원가족(origin family)이나 친척, 이웃 등 사적인 자원의 가구 간 이전을 통해 낮은

〈표 2〉 단독가구의 가구경제적 특성 :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천 원)

		2006		2008		2009		2010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주거형태	단독	63.2	40.9	54.1	32.9	58.5	29.0	54.9	26.3
	아파트	24.7	43.3	30.6	46.3	21.4	49.1	22.8	50.1
	연립주택	10.6	14.7	13.3	19.5	10.6	11.4	10.3	11.0
	다세대	1.5	1.2	2.1	1.4	9.5	10.5	12.0	12.6
점유형태	자가	36.8	60.9	40.6	63.9	40.4	65.0	39.9	65.3
	무상주택	7.9	3.3	9.8	3.2	9.6	2.9	8.1	2.7
	사택	1.0	0.9	0.4	0.6	0.3	0.4	0.2	0.3
	전세	26.5	21.4	21.0	20.5	20.6	20.1	23.2	20.4
	영구임대	0.0	0.0	0.0	0.0	0.9	0.5	1.9	1.0
	월세	27.8	13.5	28.3	11.9	28.2	11.1	26.7	10.3
가계재무	경상소득	1,025	2,906	1,141 (3.4)	3,254 (6.3)	1,108 (-2.8)	3,294 (1.2)	1,190 (7.4)	3,491 (6.0)
	시장소득	935	2,813	1,039 (1.9)	3,121 (6.0)	991 (-4.7)	3,140 (0.6)	1,061 (7.1)	3,317 (5.6)
	가처분소득	968	2,679	1,063 (2.6)	2,985 (6.1)	1,039 (-2.3)	3,013 (0.9)	1,106 (6.4)	3,174 (5.3)
	가계소비	878	2,475	1,005 (3.1)	2,718 (5.2)	1,024 (1.9)	2,776 (2.1)	1,089 (6.4)	2,961 (6.7)
	소비지출	708	1,945	812 (4.6)	2,114 (4.9)	804 (-1.0)	2,149 (1.7)	843 (4.9)	2,287 (6.4)
	비소비지출	170	530	193 (-2.8)	604 (6.4)	220 (14.0)	626 (3.7)	246 (12.1)	674 (7.6)
	흑자가구	68.3	77.9	66.8	77.8	67.3	78.9	65.2	77.8
	적자가구	31.8	22.2	33.2	22.2	32.7	21.2	34.8	22.2

주:1)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구규모(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균등화 값임.
 2) 적자가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가구로 정의됨.
 3)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득원을 보충하는 가계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공·사 이전소득)은 1,190천 원으로 다인가구 3,491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은 1,061천 원으로 이는 다인가구의 33.2%에 해당함.

※ 가구규모(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소득(경상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2인 이상 다인가구의 60% 수준에 이룸.

- 단독가구의 가구소득 절대 규모는 남성의 경우 장년층-청년층-노년층 순으로 높고, 여성의 경우 청년층-장년층-노년층 순으로 나타남. 노년층 가구소득은 노동시장 은퇴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및 공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 청년과 장년세대 소득의 43% 수준에, 여성 노인은 타 세대의 40% 수준에 채 미치지 못함.

- 2010년 기준 단독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비는 1,089천 원으로 다인가구의 2,961천 원의 35.5% 수준에 그치고 있고 소비지출(843천 원)이 가처분소득(1,106천 원)의 76.2%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저축여력이 미약함을 짐작할 수 있음.

※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가구로 정의되는 적자가구

의 비중은 2006년 기준 단독가구가 31.8%로 다인가구 22.2%보다 9.6%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독가구의 적자 비중은 2010년 34.8%까지 증가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시장 특성

- 단독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단독가구의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은 41.2%, 자영자와 무직자 가구 비중은 각각 11.6%, 47.2%로 분석됨. 다인가구의 임금근로 및 자영자 비중은 58.2%, 28.0%로 단독가구보다 높은 반면, 무직자 가구의 비중은 13.8%로 단독가구와 33.4%p 차이를 보여 단독가구의 다수가 취업취약 계층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업상태에 있는 단독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다인가구주와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은 16.1%p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각각 15.0%p, 8.2%p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있음.

- 단독가구 취업자의 직종분포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하면, 관리전문직, 사무직 비중이 다인가구와 상당한 격차로 낮게 나타나고 1인 가구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취업상태를 비교하면, 단독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다인가구에 비해 뚜렷하고 동시에 최근 들어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1인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 :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

		2006		2008		2009		2010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가구구분	근로자가구(임금근로)	41.2	58.2	37.5	59.6	40.3	60.2	43.8	60.4
	근로자 외(자영자가구)	11.6	28.0	12.8	26.3	11.4	25.3	12.4	24.8
	근로자 외(무직자가구)	47.2	13.8	49.8	14.2	48.4	14.4	43.7	14.8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4	47.2	34.1	50.2
	임시직					28.5	16.2	29.5	14.5
	일용직					18.3	7.0	14.3	6.1
	고용주					2.0	8.5	1.6	8.4
	자영자					17.1	19.7	17.8	18.5
	무급가족종사자					0.0	0.1	0.0	0.1
	기타					2.7	1.4	2.8	2.1
직종	관리전문직					8.0	19.1	9.9	18.6
	사무직					5.0	12.6	4.2	12.9
	서비스직					13.7	16.0	14.2	15.1
	기능직					9.2	26.7	10.6	27.2
	단순노무직					15.8	11.0	17.2	11.2
	기타					48.4	14.6	43.8	14.9

주:1) 다인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종사상 지위는 2009년부터 경찰조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09년 이전은 비중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06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층은 31.6%로 이는 같은 기간 2인 이상 다인가구의 9.7%에 비해 무려 21.9%p 높은 수치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 비중과 150% 미만의 차차상위계층의 비중도 각각 5.6%, 8.4%로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 201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절대빈곤율은 41.4%로 2006년에 비해 약 1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다인가구의 절대

- 빈곤율은 10.1%로 2006년에 비해 0.4%p 증가한 것과도 대조를 이룸.
- 취업상태와 빈곤을 함께 고려해 보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원이 홀로 존재하는 단독가구의 비취업 상태는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 2006년과 2010년 모두 절대빈곤층의 비취업 비중은 85.1%와 80.4%로 절대빈곤층 대다수가 비취업 상태에 놓여 있고,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의 비취업 비중 역시 65.2%, 64.9%로 높은 특징을 보이며, 다인가구의 해당 비중은 2006년과 2010년 모두 단

〈표 4〉 1인 가구의 소득계층별×취업상태별 구성비 변화

(단위: %)

1인 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 체	취업		비취업	전 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곤층	절대빈곤층	3.0 (9.6)	1.7 (5.4)	26.9 (85.1)	31.6	6.6 (16.1)	1.5 (3.6)	33.2 (80.4)	41.4
	차상위층	1.1 (19.8)	0.9 (15.0)	3.7 (65.2)	5.6	1.4 (25.0)	1.1 (19.4)	3.0 (55.6)	5.4
	차차상위층	2.3 (27.5)	0.7 (7.7)	5.5 (64.9)	8.4	3.3 (58.6)	0.1 (2.4)	2.2 (39.0)	5.7
비빈곤층		34.7 (63.8)	8.4 (15.5)	11.2 (20.7)	54.4	32.5 (68.4)	9.8 (20.5)	5.3 (11.1)	47.5
다인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 체	취업		비취업	전 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곤층	절대빈곤층	2.7 (28.0)	1.7 (17.8)	5.2 (54.2)	9.7	3.1 (31.0)	1.0 (10.1)	6.0 (58.9)	10.1
	차상위층	1.9 (50.7)	1.1 (29.2)	0.8 (20.1)	3.7	2.1 (59.5)	0.8 (23.9)	0.6 (16.6)	3.5
	차차상위층	3.6 (51.7)	2.2 (32.1)	1.1 (16.3)	6.9	3.2 (53.3)	1.7 (28.1)	1.1 (18.7)	6.1
비빈곤층		51.5 (64.6)	24.2 (30.3)	4.0 (5.1)	79.7	54.0 (67.2)	22.2 (27.7)	4.1 (5.1)	80.3

주:()는 소득계층별 구성비중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독가구와 비교해 크게 낮음.

- 단독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150%를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은 2006년 9.7%에 2010년 14.0%까지 증가한 반면, 다인가구는 같은 기간 13.2%에서 11.9%로 오히려 1.3%p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단독가구의 빈곤화 경향이 비취업에 의한 노동소득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 지위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시사점

- 단독가구는 다인가구와는 달리 여성, 청년층 및 노년층, 저학력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독가구 내 장년층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임. 또한 청년층 단독가구의 경우 고학력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는 결혼관의 변화 등에 따른 만혼화 현상과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 가구로 분석되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가구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44%(2010년 기준) 정도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근로빈곤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단독가구의 형성요인(고령화, 노동시장 경쟁구

도, 가족해체, 만혼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는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등장해 있으며, 기존 2세대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기조 변화가 요구됨.

- 다인가구 중심의 주거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저소득층 단독가구의 주거비 지원정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에 의한 충분한 소득원 확보가 어려운 단독가구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됨.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jhban@kli.re.kr / 02-3775-5581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